

건강 칼럼

화장실 이야기

화장실의 역사는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됐다.

원시시대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배변을 했고 땅에 버려진 배설물은 자연적으로 처리가 됐지만, 정착을 하면서 배설물을 처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분뇨를 농경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의 은나라, 페르시아, 멕시코, 페루에서는 사람이거나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사용했다.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기원전 3000년, 그리스 미노스 문명의 발생지인 그리스 크레타섬의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됐다. 도기 변기와 나무 변좌로 돼 있었고, 아래에는 수로가 있어 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비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었다.

로마시대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목욕문화도 발달했으며, 화장실은 아래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자연 수세식이었다. 또 공중화장실은 칸막이가 없어 사람들은 변기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로마 멸망 후 목욕탕과 화장실 문화는 쇠퇴했다.

중세 유럽에 목욕을 위해 물을 드러내는 것은 죄악이며, 목욕은 건강을 해친다는 잘못된 종교적 및 의학의 이유가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람들이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겼고, 대신 향수가 발전했다. 하지만 화장실은

만들지 않았고, 야외에서 용변을 보고 실내에서는 요강을 사용했다.

당시 유럽의 도시에서는 길거리에 분뇨와 쓰레기를 버리고 용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서 온 도시가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다.

여성들이 거리를 걸을 때 오물로 인해 치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무로 높은 굽을 만들어 신기 시작한 것이 하이힐의 유래다.

17세기경에는 도자기로 된 아간 칠실용 변기인 요강이 개발돼 일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됐으며, 아침이면 밤새 요강에 담겨졌던 분뇨를 청문을 통해 길거리에 던져 버렸다.

현대적 개념의 수세식 변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존 해링턴이 여왕을 위해 고안했다.

이후 영국의 수학자 일렉산더 커밍이 해링턴의 변기를 개선해 물을 고이게 함으로써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를 부착해 수세식 변기로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다.

19세기 말부터 화장실을 침실 옆에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목욕과 세

면기를 함께 설치했는데, 현대식 형태의 화장실은 1852년 미국의 한 호텔에 처음 설치됐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화장실의 유적이거나 이후 화장실 역사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농경이 정착되면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분뇨를 보관하면서부터 되도록 후미진 곳에 화장실을 마련했다.

땅에 커다란 항아리를 묻고 그 위에 두 개의 나무판을 걸쳐 가운데에 변을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아간에는 요강이라는 간이식 변기를 사용하였는데, 바닥이 넓적한 둥근 모양으로 유기, 청동, 철, 백자, 도기, 자기, 옹동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

용변 후에는 짚이나 나뭇잎, 채소, 옥수수수염 등으로 뒤처리를 하고 분뇨와 함께 퇴비로 사용했다.

수세식 변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 강점기 때로, 당시 특급 호텔이었던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에 수세식 변기가 설치됐다고 한다.

좌식 양변기는 1945년 이후 호텔, 백화점, 빌딩 등에 설치됐고, 수세

식 화장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이 한창이었던 70년대 중반부터였다.

공중화장실에서 좌식 변기만 설치된 여성용과는 달리 남성용에서는 좌식 대변기와 소변기를 따로 설치돼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변이나 남녀 모두 앉아서 보아왔지만, 소변은 '남자는 서서', '여자는 앉아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관습도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다.

예전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서서 소변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고, 중세유럽에서 여성들의 치마폭이 넓은 이유도 길거리에 서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는 속설도 있다.

비뇨기과적으로 자체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현대식 의복, 특히 속옷을 입게 되면서부터 방광과 요도의 구조와 생리의 차이에 따라 남녀의 자세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는 남자들이 앉아서 소변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 유럽이나 일본 남성들 상당수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

남자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전립선 건강이나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한 연구는 없다.

다만, 전립선비대증이 심해 방광 기능이 약해졌을 때 앉아서 소변을 보면소변 시작하기가 용이하고 배뇨속도가 증가돼 잔뇨를 줄일 수는 있다.

사설

국회 심의 3천5백억 증액 실현해야

지금 전북도가 예산 증액을 위하여 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국회 심의에서 3천5백억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액수이나마 반드시 실현해야 했다. 안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이고 바깥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대로 압박해올 때 때문에 다들 걱정이 크다. 그러는 중에 군산 조선소의 폐쇄 위기도 지역 경제를 위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의 앞날이 암담한데 전북도가 예산 증액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6조2천억 확보 노력이 성공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지사가 대통령 하야를 말하면서도 브레인은 정부에 건의할 과제를 계속 발굴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이 된다. 세상이 어수선할 수록 도지사와 전북도는 관심사를 지역 발전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예산 증액을 위하여 예산보다 더 힘써야 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아직 시일이 보름정도 남았으니 말이다. 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매번 당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뜻하는 만큼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이지 6조 2천억 원이라는 액수도 그리 탐탁스런 수준은 아니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챙겨야 한다.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동 보조의 정신이 필요하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속돼 있든 우리 지역의 몫을 온전히 챙기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워낙 자주 반복해 주문했던 거라 성가실 테지만 들을 것은 들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시일 것이라고 했거니와 매년 이때쯤이면 아쉬운 게 하나 돌아오니이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긴장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지역의 나후 때문에 도민들은 상처가 깊다. 발전 청사진 그대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그것도 많이 증액돼야 한다. 약간 증액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한발 크게 터뜨리는 그 무엇이 있어야 했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익산 AI 바이러스 확산 철저히 막아야

충청남도에 이어 전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류독감으로 알려진 AI 불꽃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 봉강천을 찾은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인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익산 만경강의 철새도래지에서도 동일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흰뺨검둥오리를 포획해 검사한 결과가 그렇다. 아직 발병 소식은 없으나 분변 검출 지역의 반경 10km안에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언제 여기저기를 들쭉날쭉도 모르기 때문이다.

철새가 올 때쯤이면 거의 어김 없이 조류독감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가창오리 백 여 마리가 폐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야생의 가창오리는 면역력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그때 가창오리들이 죽었으니 그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중에서도 고병원성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니 행여

단 한 농가라도 발병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현재 방역 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동물 위생시험소 방역관, 공수 의사, 방역사들을 동원해 닭에 대한 임상 예방 작업과 오리에 대한 분변 검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닭은 오늘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그리고 오리는 23일부터 해제된다. 현재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으로부터 10km 이내에 233개 농가에서 닭 200만 마리, 26개 농가에서 오리 8만1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전북도에 조류독감 비상이 걸렸다고 했거니와 이번에도 도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조류독감이 철새와 무관하지 않음에 이번에도 드러났으므로 철새도래지를 찾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자칫했다가는 철새의 분변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가금 농가에 조류독감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철새에 대한 구경이 아니라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독자제언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

국내 휴대폰보급률(지나해 말 기준)이 86%로 세계 4위로 크게 늘어나면서 유치원생들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4300만여명이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운전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위험한 운전에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그리고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다.

2015년도 국민교통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운전 중 에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람들은 인일한 생각으로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통 운전자의 시야와 비교했을 때 20도 정도 줄어들며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시야가 분산 된다.

특히 2초정도 사용 할 경우 30미터의 거리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셈이다.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은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오거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때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무방비인 상황이다.

김해정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치매 어르신 예방 인식표로 실종 예방을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치매 어르신을 찾는 신고를 많이 접하곤 한다.

어르신들을 꼭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민원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이 찡찡해진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도내 치매환자는 3만8천6명이다. 노인복지 관계자들은 치매환자 증가에 대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치매로 인해 실종되는 환자 역시 2013년 7천983명에서 지난

해 8천2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노인은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생존 문제와도 관련이 큰 만큼 가족이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의 환자가 길을 잃고 사나흘 길거리에서 지내면 밤 추위를 이기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종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실종 예방을 위해서 각 시도의 보건소에서는 현재 치매 어르신 예방 인식표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김기희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